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턴트 대표

혼자서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다는 말을 흔히들 하곤 했다. 어디 밥맛 뿐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은 어디 서고 쓸데 없는 말이 된 것 같다. 얼마 전 한국인의 집에 대한 생각이 담긴 자료를 보고 든 생각이

다. 스웨덴 펄피니싱 기업인 이케아는 지난 10년간 약 40여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집 생활'을 주제로 연구, 조사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자료를 종합하여 올해 초 '2023 라이프 앳 홈 보고서'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더 나은 집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주도권', '안락함', '안전함', '들봄', '소속감', '즐거움', '성취감', '희망'이라는 8가지 니즈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지구 사람들의 생각을 담았다.

조사 결과에서 한국인은 집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집 생활에 있어 가장 큰 즐거움으로 꼽혔고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보람을 느끼거나, 함께 사는 식구들과 웃고 지내는 시간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문

'나홀로 집'의 결말

항에서 세계 최하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속감을 느낀다는 문항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응답을 기록하면서 한국은 가족과 이웃에 거리를 뒀고 관참은 사회, 이웃과의 소통에 관심이 없는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몇 해전 '요즘 출산율이라면 가정은 커녕 나라도 사라질 판'이란 문장이 담긴 어느 칼럼을 읽었을 때 만큼이나 자료에 나온 한국인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을 보니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집은 이제 '우리 집'이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무엇보다 혼자 온전히 느끼는 자유와 편안함이 가장 중요시 되는 공간이 되었다.

요즘 세대는 유년시절부터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서 버티느라 가령 현관을 열고 들어서며 맡는 구수한 찜계 냄새나 '어서 와'란 인사말을 들어 본 기억이 별로 없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가족이 함께여서 좋았던 그리고 특별한 기억 없이 편안한 휴식만 강조된 집에서 자란 세대들이 '나홀로' 집을 행복하는 집으로 손 꼽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함께 나누어야 하는 귀찮은 일이 줄어들고 불편한 따위야 없는 집 생활이 최고의 집 생활일까. 존 S. 엘런은 신경과학과 고인류학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풀며 집과 인간의 관계를 고찰했다. 그는 '집은 우리를 어떻게 인간으로 만들었나'라는 저서에서 '집은 세상 일에 지친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공간이다. 따라

서 집의 느낌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휴식하고 회복하면서 경험하는 느낌들에서 나온다"고 기술했다.

우리는 생활체의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생리적 상태를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항상성이라고 배웠다. 생물의 '항상성'처럼 집은 우리의 항상성을 위한 필수 공간이다. 그리고 신체의 항상성 유지가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에서 조화로운 활동을 통해 유지되듯이 집의 항상성도 편안함이라는 단 한가지의 조건만 충족된다고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행복학자들의 의견을 모은 연구 '더 큰 행복을 위한 방법'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행복을 위한 전략으로 도출해낸 방안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 사는 삶인 '사회적 연결'을 행복한 삶을 위해 우선으로 꼽았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자주 언급하는 이 시대에 안락함, 소속감, 성취감, 기쁨 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집'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집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여러 가치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다. 우리는 한 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자고가고 방을 내주던 공감력 넘치던 민족이 아닌가. 그 후한 마음으로 타인까지도 나의 집에 품을 수 있었던 한국인이 집 생활의 행복을 나홀로만으 품을 수 없지 않을까. 영화 '나홀로 집에'의 흔자가 된 케빈은 유쾌하게 위기를 넘기고 다시 부모를 만나게 된다. 부디 우리의 '나홀로 집'에 도 지금과 다른 해피 엔딩의 결말이 이어지길.

社說

신당 창당 이낙연, 유승민의 정치 신념 배워야

어제는 보수와 진보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두 정치인의 극단적인 행보가 관심을 끄는 날이었다. 한쪽에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당 잔류와 함께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비례계 탈당 의원들과 공동 창당을 발표했다. 후보가 주목하는 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경선에 나섰다는 공통점이 있는 유전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정반대 행보다. 4선의 유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탈당으로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등 당내에서 비주류로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다. 그런 만큼 탈당후 제3지대로 갈것이란 예상

했다는 점에서 신선하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이 전 대표의 정반대 행보는 그에 게 과연 흔들리지 않는 정치 신념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전 대표는 27일 새로운미래 광주시당을 창당한데 이어 28일에는 그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 민주당 탈당 의원 중심의 '미래대연합'과 공동으로 '개혁미래당'이란 이름의 신당을 창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행보로 불매 민주당 이름으로만 5선 의원을 지낸 그가 애초부터 진보 철학에 애정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호남 유권자들은 이제명 대표뿐만 아니라 진보의 본산으로서 민주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이제명 사당화'를 내세워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명분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 텃밭에서 진보정당의 수혜를 온전히 누린 그가 신당을 만들어 중도 노선을 걸겠다는 것도 히스토리가 없는 정치적 탐욕에 불과하다. 같은 처지, 다른 결정'을 보면서 호남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화재 취약한 노후주택 누전 점검 지원 절실

최근 광주시 서구 쌍촌동 2층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80대 부부가 참변을 당했다.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을 건물 1층 벽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발생한 누전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노후 건축물이다. 3채 중 1채 꼴이다. 특히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중 지어진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4.1%를 차지한다.

불이 난 건물은 지어진지 43년이나 된 노후 주택이었다. 부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누전차단기가 작동했는데도 넘겨지 않은 형편 때문에 전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된 건축물은 누전 등 전기 관련 화재에 취약하다. 그럼에도 노후주택 거주자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누전 위험을 진단하는 안전점검 신청을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해당 주택이 계약한 전력 용량에 따라 내야하는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2019년 210건, 2021년 198건, 2023년 14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는 2019년 5건, 2021년 4건, 2023년 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지역에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중도 상당하다. 2021년 기준 광주지역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가운데 29.7%가 30년 이상 된

안타까운 쌍촌동 화재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점검 서비스를 늘리고, 전기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119 무료 응급조치 서비스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누전점검 지원책이 절실하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창으로 다가간다. 차나 기차를 타면 누구나 창가에 앉는다.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산 구비를 넘고 터널을 지날 때는 오금이 저리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더 이만저만이 아니다. 버스나 기차는 어느 시인의 시 구절처럼 단풍잎 같은 차창을 달고 달린다. 저 멀리 마을들도 여기저기 창문에

관광 말고 여행

들리지만, 누구의 창은 사방을 두루두루 살피도록 고요하다. 누군 큰 창이지만 편차 우리로 비틀어 보고, 또 누군 작지만 따뜻하게 구석구석까지 본다. 어떤 이의 창은 단단히 열쇠로 굳게 닫혀 있고, 또 어떤 이 창 앞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만원이다. 어떤 이는 그 창에서 희망을 보고, 또 어떤 이는 절망을 읽는다.

관광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디에서나 여행이다. 관광은 육체적 포만을 꾸꾸지만 여행은 지적 허기를 채우는 일이다. 이제의 바람 한 점에서 생명의 경건함을, 저녁 노을에서도 우주의 장엄함을 느끼려 한다. 내 가슴을 누가 뛰도록 하기 보다는 이제 내가 스스로 내 가슴을 뛰게 하려 한다.

내 창 앞에 펼쳐진 세상은 언제나 소상하다. 누군 취업하러 달려가고, 누군 급히 병원에 실려간다. 누군 영영 울고 누군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여기저기 각자 달리고 또 된다.

누구와 여행할까 고민하지도 않는다. 누굴 만날까 어떤 일이 생길까 호기심 가득 세상에 발을 내딛는다. 어디로 갈까 더 이상 연연하지도 않는다. 나를 깨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관광은 세상을 스치듯 바라보지만 여행은 내 자신을 구석구석 점검하고 탐색하여 살아있도록 한다.

그런 어느 날, 문득 내게도 또 하나 감춰진 창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두 눈은 평소처럼 밖으로 향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눈이 내 안을 뚜렷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밖으로 열리는 창이 아니라 안으로만 열리는 창이 분명했다.

더는 창을 닫지 않는다. 우린 너무 창을 단단히 닫고 살아간다. 상대도 보지 않고 자신도 돌아보지 않는다. 더는 미움과 혐오 가득 편을 가르는 극단의 창은 안 된다.

슬그머니 그 창을 열고 들여다본다. 나를, 내 갇힌 속내를... 내 창을 열고 내 안을 보는 순간 거기에 또 다른 세상과 또 다른 내가 웅크리고 있다.

안을 보는 눈, 심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무한대 신비로운 세상이다. 거기 창살을 쫓아 내 심안 가득 향기가 넘쳐도 국화, 그리고 매화도 꺾어 내 심안 가득 향기가 넘쳐도 록 한다. 세상을 꽃처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의 꽃살창, 얼마나 멋진 여행인가.

나 역시 그들처럼 우왕좌왕,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때론 흔들리고 때론 비틀거리다. 그런 상처 가득한 나에게 가만가만 다가간다. 누구처럼 나 역시 나를 닮아가지 못하고 관광하기가 급급했다. 내 안에 하깨비를 바라본다. 조용조용 다가가 나를 깨안는다. 진정한 여행자로 개별자로 뚜벅뚜벅 세상에 나가도록 토닥이고 또 위로한다.

내면의 눈은 삶의 구심점이다. 밖이나 겉으로 튀어나가려는 삶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준다. 늘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품격 있게 살도록 한다.

밖을 보면 관광이고 안을 보면 여행이다. 속소나 먹거리로 집착하면 그건 관광이다.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자기 안을 볼 수 있는 창을 가진 이, 거울 앞에서 걸 화장만 하는 관광이 아닌, 그런 사람이 인생의 진짜 여행자는 아닐는지.

기고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이 지났다. 모금 실적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1년간 약 52만 5000건의 기부로 650억 2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고향사랑기부제 성적표를 공개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효약, 고향사랑기부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것이다.

간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달 간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남 지역에 45억원이 모금되는 등 전국적으로 연말에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면 답례품 추천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기부금의 30%를 제공하는 답례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등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기부를 실천하는 동력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소멸 위기의 지역에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회문제나 지방소멸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부가 그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부 효과를 기대하며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로 알 수 있다.

전남도와 시·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고향 마을이 활력을 찾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에 기금사업 발굴, 전문가 의견 수렴, 컨설팅 등으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3월 경상북도 울진군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5일만에 기부금 4억원이 모였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될 당시 하루에 8억원이 모금되기도 했다. 2023년 사랑의 열매에서 발표한 기부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기부 효능감이었다는 기부 트렌드는 이러한 현상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기부금이 무엇에 쓰이는지 어떠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기 기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지자체의 노력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연간 기부액 상향, 개별전화·서신·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 허용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률안 20여건이 발의되었고, 그중 12건의 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시행 첫해인 2008년 81억엔에서 2021년에 약 100배가 증가한 8302억엔을 모금한 것처럼 현재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면 고향사랑기부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의 재정확보를 해결할 특효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내 고향 발전과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하고 싶다.

無等鼓

최근 순천대학교 박물관(조사단장 최인선 교수)의 고흥 봉림고분군 4호분 발굴 결과가 흥미롭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4호분은 형태가 방패 모양이어서 눈길을 끈다. 주로 원형 또는 방형(사각형)인 삼국시대 고분과 다른 형식으로 다양한 국제적 속성을 갖고 있는 고분으로 평가된다. 최인선 교수는 "봉림고분군은 백제의 영향력이 미쳤던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구조적으로 마한·가야·왜계 등의 고분 속성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과 금동신발, 청동거울, 철제갑옷 등 지배자를 상징하는 최고 위세품(威勢品)이 한 고분에서 세트를 이뤄 나온 것은 1971년 백제 무령왕릉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직접 발굴현장을 방문하고 출토유물의 보존처리를 지원하기도 했다. 야막고분은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조사단장 김용민)에서 발굴했는데 철제갑옷과 무기, 동종, 옥 등이 발굴돼 고흥의 위상을 재입증했다.

고흥 안동고분

고흥반도는 마한·가야·왜계로여서 다양한 문화가 섞인 고분과 유물이 발굴되곤 하는데 2006년 발굴된 안동고분과 2012년에 발굴된 야막고분 등 역사·고고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유적들이 많다. 안동고분은 전남대학교박물관(조사단장 임영진 교수)에서 발굴해 고흥을 일약 동북아 고대사의 중심지로 끌어올린 고분이다. 특히 금동관과 금동신발은 1917년 나주 신촌리 9호분 이후 전남지역에서 90년만에 함께 발굴된 유물이었다. 최병현 당시 한국고고학회장은 "금동

안동고분은 발굴 당시 사적 지정이 거론될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나 아직까지 전면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고대사 문화가 섞인 고분과 유물이 발굴되곤 하는데 2006년 발굴된 안동고분과 2012년에 발굴된 야막고분 등 역사·고고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유적들이 많다.

에서 전남지역은 물론 고흥의 위상을 대표하는 고분이 사장돼 있는 셈이다. 고흥군이 최근 활발하게 고분군 발굴·정비에 나서고 있어 반갑다. 새로운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유적과 유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안동고분을 비롯한 고흥지역 고분들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사적 지정 등 보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연예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